

» 2012년 채란업 전망

2012년 계란 가격 하락 전망

- 계획적 노계도태와 병아리 입식 필요 -



김형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축산관측팀
위촉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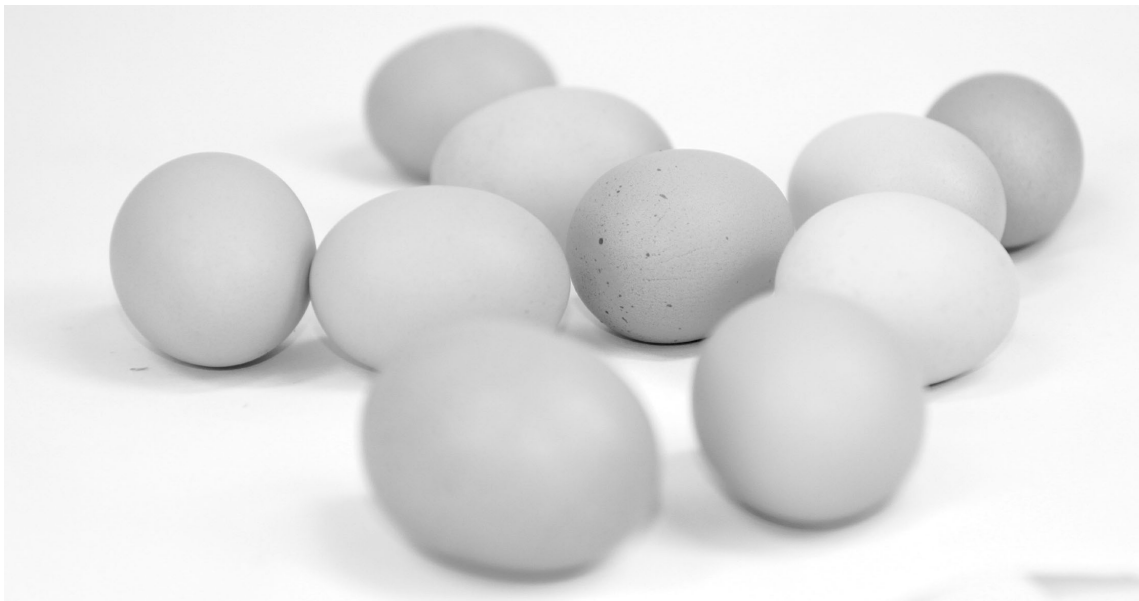
2010년 12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ighly Pathogenic Avian Influenza, HPAI) 발생으로 산란계 사육 마리수가 감소하였다. 이후 지속적인 산란 노계도태 지연으로 사육 마리수는 회복하였지만, 실질적으로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병아리 생산 잠재력 상승으로 2012년 산란계 사육 마리수는 2011년보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병아리 입식 증가로 계란 생산량이 증가할 것으로 분석된다. 계란 생산량 증가로 2012년 계란 가격은 전년보다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2년에는 계란 공급과잉이 예상되므로 계획적인 산란 노계 도태와 병아리 입식이 이루어져야 할 때이다.

1. 2011년 산란계산업 동향

1) 산란계 사육 마리수

2010년 12월 HPAI 발생으로 인해 산란계 189만 마리가 매몰처분되었다. 또한 산란 종계가 매몰처분 되면서 병아리 생산이 감소하였다. 병아리 입식이 감소하여 6월까지 산란계 사육 마리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산란계 농장에서 병아리 생산 감소에 따른 병아리 품귀현상과 가격 상승으로 입식이 어려워져 산란 노계 도태 지연이 지속되면서 2010년 9월 산란계 사육 마리수는 전년보다 증가하였다. 하지만 1~10월 산란 노계도태가 전년 동기 대비 16.8% 감소한 것을 감안하면, 사육 마리수는 회복하였지만, 실질적으로 HPAI 이전 수준으로는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산란 노계 도태는 여전히 지연되고 있으며, 산란 종계 사육이 회복됨에 따라 병아리 생산은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1년 12월 산란계 사육 마리수는 전년보다 0.3% 증가한 6,190만 마리로 전망된다(2011. 12. 19).

2) 계란 수급 및 계란 가격 동향

병아리 생산 감소로 인해 병아리 입식에 차질이 생기면서 계란 생산에 가담하는 신계군이 감소하였다. 또한 산란 노계도태가 지연됨으로써 노계군 비중이 늘어 계란 생산성이 크게 하락하였다. 2011년 산란용 닭 평균 사육 마리수는 2010년보다 증가하였지만, 생산성 하락으로 인해 계란 생산량은 전년보다 감소한 573만 톤으로 추정된다.

2011년에는 일본 방사능 유출로 인한 수산물 대체수요와 돼지고기 가격상승에 따른 돼지고기 대체수요 등으로 계란소비의향이 일시적으로 상승하였지만, 계란 공급량 감소로 1인당 계란 소비량은 전년보다 감소한 11.7kg으로 추정된다.

2011년 계란 평균 산지가격은 2010년보다 19.9% 상승한 1,360원(특란 10개당)을 기록하고 있다. 계란 생산량 감소로 인한 공급부족이 주요인으로 판단된다. 이와 더불어 상반기 대체수요로 인한 계란수요의 증가가 계란가격 상승에 기여하였다. 추석이후 계란수요가 감소하면서 계란 산지가격은 일시적으로 전년보다 낮게 형성되었지만, 노계도태가 일시적으로 증가하

표 1. 계란 수급

단위 : 천 톤, kg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p)
국내생산	514.9	537.4	543.8	541.9	579.3	577.5	573.0
수입	3.5	3.2	3.1	1.9	1.7	2.1	2.4
1인당 소비	10.8	11.2	11.3	11.2	11.9	11.9	11.7

면서 계란 공급감소가 수요감소를 상쇄시켜 산지가격은 다시 반등한 후 12월 중순 약보합세를 보였다.

주 : 2011년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추정치
 자료 : 농림수산물식품부

2. 2012년 산란계산업 전망

1) 산란계 사육 마리수 전망

2011년 1~11월 산란 종계 입식 마리수는 62만 4천 마리로 전년 동기보다 27.0% 증가하였다. 이를 이용하여 2012년 상반기 병아리 생산 잠재력을 추정한 결과, 2012년 1분기 생산 잠재력은 전년 동기보다 44.1%, 2분기에는 72.2%로 크게 높아 병아리 생산 과잉이 우려되고 있다. 산란종계 매몰처분으로 2010년보다 크게 하락하였던 병아리 생산 잠재력 지수는 산란 종계 입식 증가로 점차적으로 회복세를 보여왔다.

2012년 상반기에는 산란계 사육 마리수가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산란 노계 도태 마리수에 따른 사육 마리수 변동이 큰 한 해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산란계 평균 사육 마리수는 병아리 입식 증가로 2011년보다 증가한 6,161만 마리로 전망된다.

2) 계란 수급 및 계란 가격 동향

산란 노계도태가 이루어지면 병아리 수요는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판단된다. 병아리 입식 증가로 계란 생산에 가담하는 신계군은 대폭 증가하여, 2010년부터 감소세를 보이던 계란 생산량은 2012년에 증가할 것으로 분석된다. 2012

년 계란 생산량은 전년보다 2.6% 증가한 587만 7천 톤으로, 1인당 계란 소비량은 12.0kg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2년 계란가격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 산란 노계 도태가 지연되면서 설수요에 의한 계란 가격 상승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며, 이른 설(1월 23일) 이후 계란 수요감소 기간이 전년보다 길어지면서 수요감소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반기에는 신계군의 증가로 인한 계란 생산량 증가가 계란 가격의 발목을 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늦어도 6월에는 계란 공급과잉이 예상되므로 계획적인 산란 노계 도태와 병아리 입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계란 생산량 증가에 따라 2012년 계란 산지가격은 전년보다 12.9% 하락한 1,184원으로 전망되며, 이후 2021년까지 계란 수요량이 증가함에 따라 산지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3. 맺음말

2011년은 HPAI 발생 뿐 아니라 병아리 가격, 사료가격 인상 등 어려움이 많았지만, 산란계 농가의 지혜로운 대처로 국민들에게 안전하고, 고품질 계란을 제공할 수 있었다. 2012년에는 계란시장에 불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산란계 농가의 저력과 계획적인 농장경영으로 난관을 잘 헤쳐 나갈 것이며, 2012년에는 국민들에게 더욱 사랑받는 산란계 산업이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양계**

표 2. 계란 수급 전망

구 분	단위	2011	전 망		
			2012	2016	2021
사육 마리수	만수	6,122	6,161	6,292	6,395
계란 생산	천톤	573.0	587.7	604.4	616.9
1인당 소비	kg	11.7	12.0	12.3	12.5
계란 산지가격	원/특란10개	1,360	1,184	1,249	1,456

주 : 2011년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추정치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